

추 모 사

이 땅에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전해주시어 선법(禪法)을 꽃피우시고, 먼 먼 부절한 깨달음을 열어주신 종조 도의국사님 각령 전에 분향 배례하고 삼가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사께서는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야 한다는 오랜 수행의 깨달음으로, 이 땅이 머금고 있는 종자들에게 두루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에 모든 중생의 마음 땅에 숨어 있던 불성의 씨앗들이 시우(時雨)를 만나 마침내 모두가 싹을 틔우니, 구산선문이 열개(列開)하고 보리의 열매 스스로 이루어지듯 수많은 명안종사들이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가갈 수 있었습니다.

여래의 심인이 열리고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과 지혜를 키우는 가르침이 함께 성립되니 이 땅의 백성들은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함께 사는 지혜를 키워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공존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었으니, 진리와 자비의 가르침 속에 이 땅은 정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역사를 이어온 지 어언 1200여년, 배금주의와 물신(物神)에 경도된 이 땅은 함께 사는 길 대신 나만 사는 길을 찾고, 서로 의지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키우는 대신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이기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사회는 씻을 수 없는 비탄과 한숨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후학들이 이 땅에 진리와 자비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펼치라는 성찰과 절실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가고, 혼자서 많이 갖는 것보다 함께 나누자는 서원은 오늘 이 자

리의 참된 의미입니다.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행복을 위해
정진하는 종조의 후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자는 다짐입니다.

불제자로서, 수행자로서 이 땅에 만민 행복과 만민 해탈의 길을 열지 못
한다면 그것은 불조의 혜명을 저버리는 일이요, 보살의 행로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 상생의 길, 생명존중과 자기희생의 미덕, 평등·무
차별의 세상,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와 자비를 설해야 합니
다. 이것이 바로 불조와 종조의 가르침을 선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비탄에 빠진 우리 사회에 드리운 고통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
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조 도의국사님의 다례를 맞아 우리 후학들은 지금 저희들에게 지
워진 사회적 책무를 깊이 되새기며 이 땅에 지혜와 자비의 정토를 구현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맑은 차와 향으
로 큰 덕을 추모하며 그 가르침을 구현하고자 서원하오니 큰 자비로 섭
수하시고 종단의 앞날을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불기2558(2014)년 5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